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安成洙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鄭龍卜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54-2278~9 / FAX 56-2204
인쇄: 한라일보사

제531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보도)

1995년 8월29일 화요일

1

적·인성 검사 실시 졸준위, 3·4학년 대상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위원장 문성오 산디 4)에서는 오는 9월초합정대 중앙당에서 3, 4학년 학우들을 대상으로 적·인성검사를 실시한다.

적·인성검사를 실시하게된 배경에 대해 졸준위위원장인 '기업체들이 신입사원채용시 적·인성검사결과를 중요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졸업할 학우들을 위해 취업응시과정 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성오 졸준위 위원장은 "그동안 적·인성검사를 실시해오던 장학담당관에서 대학당국에 의해 적·인성검사에안이 삭감돼 더 이상 실시를 못하게 되자 졸준위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이에 덧붙여 1인당 검사비 6천 원 중에 4천원은 졸준위 예산에서 부담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검사희망자는 오는 8월30일까지 단체 학생회나 졸준위 사무실로 검사비 2천원을 내야 된다.

전통혼례식 올릴 신랑·신부 모집

동아리연합회(회장 송종익 농학 4)에서는 오는 9월29·30일 양일간 열리는 제9회 '동아리 대동놀이'에서 전통혼례식을 올릴 신랑·신부를 오는 9월10일까지 모집한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혼례식을 재현·계승하는 취지에서 모든 비용을 동연에서 부담해 지난 89년부터 마련한 전통 혼례식은 그동안 7쌍 부부를 탄생시켰다.

동아리연합회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LAN설치 불구 활용 늦어질 듯 29개학과 286기종 아직 교체 안돼

LAN(Local Area Network, 근거리정보통신망)이 오는 11월 중에 개통될 예정이나 일부학과에 설치된 PC 성능 때문에 당분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내 전산환경의 개선과 연구 중심으로서의 기반확보를 위한 LAN설치는 각 학과·교수연구실·행정기관 간의 행정업무의 간소화, 연구활성화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30만5천달러를 투자해 지난해 8월에 착수, 오는 11월 중에 브리지 전용 송·수라인 건설을 마쳐 모든 기반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종합전산망 구축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된 이번 LAN 설치의 전자우편기능의 제공, 도서 정보조화와 대출신청, 세계학술정보망을 이용한 각 대학 및 연구소간의 정보교환, 교내의 각종 정보에 대한 전자게시판 이용에 쓰이는 등 연구기능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학과에서 쓰이고 있는 PC가 대부분 286기종이여서 LAN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얼마간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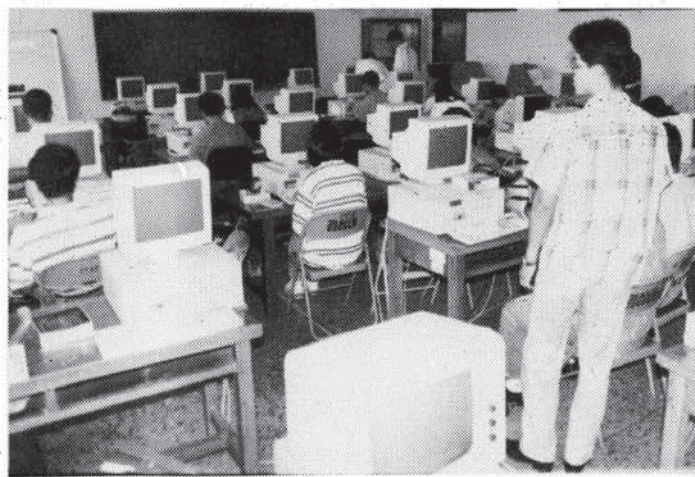
이같은 이유는 대학전산망과 PC를 연결시키고 접속코드 역할을 하게 되는 LAN카드 안에 장착된 LANMATE/TCP 프로그램 자체의 시스템 환경이 △MS-DOS 4.xx이상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고 △386/486에서 완전한 성능

을 발휘할 수 있으며 △HDD 용량이 2Mb이상의 여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286종은 기본 메모리가 1M밖에 안돼 처리속도가 매우 느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직접 학과사무실을 통해 취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8개단대 각 학과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은 2/3정도가 286인 것으로 알려졌다. △286 기종은 △인문대 전학과 △사범대 전학과 △해양대 어업, 증식, 해양환경공, 해양토목공 △자연대 물리, 생물, 화학, 식품영양, 체육 △공과대 식품공, 전자공, 산업디자인학과 등이고 △386기종은 △농과대 축산, 농화학, 수의 △공과대 통신공, 에너지공, 전기공 등이며 △486기종은 △586기종 이상은 △자연대 전산통계, 가정관리학과 등이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문대와 사범대는 현재의 286기종을 교체할 목적으로 지난 8월18일 조달청을 통해 586펜티엄 컴퓨터를 각각 10대와 25대를 구입 신청해 놓고 있어서 늦어도 9월중에는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범대 교원일 행정실장은 "286기종은 LAN 사용문제만이 아니라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준다"고 전제한 후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



○일부학과에서 쓰이는 PC성능 때문에 LAN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학교당국의 절실한 지원이 요구된다.

도 586으로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

286기종을 보유한 모단대의 한 조교는 "학과 자체내의 용역결과를 컴퓨터에 저장하려고 해도 저장능력이 부족해 교수 PC를 빌려 쓰는 실정"이라며 "LAN이 개통되면 인터넷을 통한 학술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으므로 하루빨리 컴퓨터 기종을 교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LAN개통과 관련해 우선 공과대학이 시범적으로 운영실시되고 있다. 처음으로 종전 단대 행정실에서 도맡아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수감신청 변경사항부터 LAN을 이용해 각 학과 사무실에서 직접 처리하여 업무분산이 이루어지는 등 행정업무에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해, 일부학과는 아직도 컴퓨터

기종이 286인 관계로 LAN을 이용하지 못해 단대 행정실에서 제반업무를 처리했다.

컴퓨터 교체를 위해 대학예산 책정시 인문·사회계열은 각 학과당 1백50만원을 배당했고 자연계열은 실험·실습재료비 명목으로 역시 1백50만원을 배당했다. 인문·사회계열은 이번 조달청을 통한 586펜티엄 기종 구입으로 인해 LAN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지장은 없겠으나 자연계열 일부학과는 컴퓨터 구입비로 배당받은 예산이 없어 실험·실습재료비를 컴퓨터 구입에 사용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형편이다.

학교당국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우리대학이 낙후되지 않도록 컴퓨터 교체에 대한 보다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용복기자】

특별법 제정등 촉구 교수 45명 5·18 불기소처분 반대성명서

교수 45명 5·18 불기소처분 반대성명서

지난 7월18일 검찰이 5·18관련 피고소·고발인을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각계에서 기소촉구성명과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교 교수 45명이 지난 8월23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명에 참여한 45명의 교수들은 "해방 50년의 역사가 분단으로 고착화된 민족사의 질곡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가 오히려 핍박받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 일신의 정치

적 야욕을 채운 권력자가 더 우대받는 심각한 가치전도를 보아왔다"고 전제한후 "검찰의 5·18관련 피고소·고발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 이 사회의 책임있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써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세력의 적지인을 자처해 온 문민정부가 무고한 양민을 살상하면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한 쿠데타세력에 대해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수 없다'는 봉건왕조시대의 논리로 반민주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는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교수들은 또 "5·18관련 공소시효만료에 관계없이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역사와 민족앞에 부끄럽지 않은 문민정부의 위상을 세우고, 왜곡된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서명에 참여한 교수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김광웅(국문과)교수, 김상조(국문과)교수, 허남춘(국문과)교수, 권영근(영문과)부교수, 김종태(독문과)교수, 송성희(독문과)부교수, 김희열(독문과)부교수, 김현돈(독문과)교수, 김공철(일문과)교수, 김승환(일문과)교수, 이창익(일문과)교수, 안재철(중문과)교수, 김진영(사회학과)부교수, 이상철(사회학과)부교수, 장홍용(음악학과)부교수.

▲법정대 고호성(법학과)교수, 권영호(법학과)교수, 김성준(행정학과)교수.

▲경상대 허향진(관광경영학과)부교수, 서현진(회계학과)부교수, 김진욱(경제학과)교수

▲사범대 김상덕(영교과)전임 강사, 한석지(사교과)부교수, 허정훈(윤교과)부교수, 장원석(윤교과)부교수, 안창환(윤교과)부교수, 고윤희(수교과)교수, 양진건(교직과)교수.

▲농과대 류기중(농화학)교수

▲자연대 현남규(물리학과)부교수, 이화자(생물학과)부교수, 정덕성(화학)교수, 이선주(화학)교수, 김덕수(화학)부교수, 김봉배(가정관리학과)교수, 남사용(체육학과)교수.

▲공과대 현명택(기계공)교수, 임종환(기계공)전임강사, 이재윤(통신공)부교수, 박호영(정보공)교수, 강민재(전자공)교수, 고성택(전자공)교수, 이계명(전기공)교수, 이상백(화학공)교수, 김민찬(화학공)전임강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방법 확정 내년부터 45명 정원외 선발

우리대학은 내년부터 농어촌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방법을 마련했다.

교무처(처장 김범국 경영학과교수)에서는 6월에 개정, 공포된 교육법시행령 제71조 제7항과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모두 45명의 신입생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방식을 통해 정원외로 선발기로 했다.

교무처가 발표한 96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주요사항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제외)를 졸업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96년 1월13일 전기대 입시일에 맞춰 실시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내신성적 40%와 수능능력성적 60%를 반영하여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케 된다.

형 주요사항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제외)를 졸업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96년 1월13일 전기대 입시일에 맞춰 실시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내신성적 40%와 수능능력성적 60%를 반영하여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케 된다.

둘하르방

누구와 화해인가

모든 근본이 되는 법규인 헌법 제21조 1항에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말은 모든 국민은 표현하는 자유인 동시에 모든 사항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알 권리는 국가기관 등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권리로써 민주주의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알권리 충족과 함께 여론반영 없이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8월17일에는 지역유지 및 지방의회지도자들이 호소하는 대명제를 받아들인다는 명분으로 신구법 제주도지사가 6·27선거과정에서 제주신문이 저지른 사진조작과 허위광고 게재에 대한 고발 등을 취하였다. 뒤이어 피고측 입장의 제주신문사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신의정 전 구좌을 이장단협의회회장의 선거법위반 사건 등에 대한 공소를 취하였다. 이러한 쌍방간의 행위로 6·27 지방선

거 이전에 도민의 무한대적인 관심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신지사와 제주신문사간의 공방이 잘못을 덮어둔 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하고 있다.

선거이전 신지사는 지난 6월 26일 언론중재위에 제주신문 24일자 제주대 의과대학 신설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보도 정구를 제기했으며 선거 당일인 27일 제주신문 1면에 게재된 사진과 19면 광고와 관련해 제주지방 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었다. 그런 결과로 제주신문 간부급 3명이 사진조작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태가

지 치닫게 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신지사는 "공정보도에 대한 도민적 요구속에서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으나 도민화합과 제주 미래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피력했다. 물론 신지사는 선거를 통해 생긴 갈등을 해소하여 제주도 발전을 위한 도민화합과 단결을 이룬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도민화합과 제주 미래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신지사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진정한 도민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

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빚어졌던 이런 빌미스런 사태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범법행위를 묵허버린다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회중속의 재발우려와 함께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신지사와 제주신문간의 빚어졌던 공방은 철저한 검찰 수사조사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진정한 도민 화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나 그저 '묻어두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정용복 기자】

정규 토익(TOEIC) 시험 실시 안내

경상대학이 주관하고 국제교류진흥회가 실시하는 95년도 9월 정규 토익(TOEIC)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토익(TOEIC)에 관심있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시험 일시: 1995. 9. 24(일) 10:00~
2. 시험 장소: 외국어교육관 LAB A, B, D실, 경상대학 0109 강의실
3. 응시 대상: 제주대학교 재학생인 학생 및 기타
4. 응시수수료: 20,000원(납부고지서에 의거 농협제대출장소에만 납부 가능)
5. 응시원서(납입고지서) 교부 및 사무실
 - ① 원서(납입고지서)교부: 각 학과 접수
 - ② 원서접수기간: 95. 8. 30~8.31(2일간)
 - ③ 원서접수 장소: 경상대학 행정실
 - ④ 원서접수방법: 학과에 비치된 토익 응시수수료 납부고지서(농협제대출장소에 한함)에 의거 농협제대출장소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과 응시원서를 경상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면 됨.
6. 응시자 주의사항
 - ① 지참표: 수험표,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공적으로 본인임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금지사항: 지정된 상기 지참물 외에는 일체 소지하고 고사실 내에 들어갈 수 없으며, 고사장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 ③ 응시불허: 09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09시 30분 답안작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된 후에는 고사실 입실을 금지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지연도착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 ④ 성적통보: 성적은 시험 시행후 50일 이후에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7. 기타

기타 토익(TOEIC)에 관계되는 의문사항은 경상대학 행정실 ☎54-31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실 및 양호실 이전 안내

학생처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취업정보실 및 양호실을 다음과 같이 이전 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구 분	이 전 사 항		연 락 처
	당 초	변 경 후	
취업정보실	장학실 옆	본관동쪽 농협 앞	54-2063
양 호 실	학생회관 2층	본관서쪽 이전(장학실 옆)	54-2059

1995. 8. 30

제주대학교 학생처장

동료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안내

본 연구소에서는 「동료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료상담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료 상담자」란 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자신의 성장은 물론 동료 학생의 학업, 성격, 행동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 상담전문가를 말합니다.

동료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1, 2차로 구분되어 매학기중에 8주 동안 1주일에 2시간씩 실시되는데, 1차는 기본과정(의사소통 기술)이고, 2차는 심화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다 음

1. 대 상: 재학생 전원
2. 신청기간: 95. 8. 21(월) ~9. 5(화)
3. 교육기간: 95. 9. 11(월) ~11. 10(금)
(매주 1회씩 8회, 15:00~17:00 17:30~19:30)
4. 장 소: 학생생활연구소 집단상담실(본관 3층)
5. 지도교수: 박태수 교수(학생생활연구소 상담지도부장)
6. 리 더: 동료상담자 송미경외 6명
7. 오리엔테이션: 95. 9. 6(수), 오후 5시
학생생활연구소 집단상담실(본관 3층)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

社說

의대 꼭 신설돼야

96학년도 우리대학의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제주도 의사사회가 제주대 의대신설반대진정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우리대학의 의대설립은 지방정치의 주요쟁점이 되고있다. 우리는 그동안 도의회가 의대설립과 관련하여 청와대, 교육부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물심양면의 노력을 경주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금번 의사회의 의대신설반대건을 도의회가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제주도 의사회의 상투적인 의대설립반대에 직면하여 의대설립의 당위성을 제주지역적 시각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우리 제주도는 우리나라 유일의 도서도 행정단위로 육지부와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육지부와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여 도민들의 질적인 삶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히 도민의 복지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미비, 즉 3차 의료기관의 결여로 일부 난치병 및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때로는 생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의료시설은 타지역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낙후되어 있는가? 이것은 93년말 현재 제주도의 일반 의사수가 235명에 불과하고 의사 1인당 인구수는 2,174명으로 전국평균 의사 1인당 인구수 1,202명의 2배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적으로 제주지역에 거주하면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이 육지부의 개업의에 비하여 개략적으로 2배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이것은 또한 우리대학이 제주지역에 의사를 배출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3차 진료기관인 제주대의 의대설립은 경제적 관점에서든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도내 3차 진료기관의 결여로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진료비가 과중한 실정이고 진료비가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 94년의 경우 항공편을 이용하여 수송되는 환자수는 1800명에 달하였고 93년기준 타지역 진료기관에 유출된 진료비는 50억여원에 달하였다. 우리 지역경제의 특성상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제주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적어도 육지부의 1인당국민소득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관광산업의 인프라스트라처(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3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과대학의 설치에 긴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의대설립 그 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측면이 있다. 의대설립과 더불어 의료인력의 고용이 창출되면서 의료서비스관련 제화와 용역의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정부는 정치개혁입법과 더불어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경제개혁입법을 단행하였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이 하지 못했던 개혁을 문민정부가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개혁의 실행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였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에 있다. 그 단적인 예를 작년에 있었던 우리대학의 의대설립신청의 유예와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의대설립인가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교육부가 산정한 평가점수에서 우리대학이 강원대학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이 기각된것은 문민정부의 도덕적 실종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적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 생활개혁을 기치로 내걸면서 집권후반기를 맞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은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의 필수조건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필수적 조건은 의료종사인구의 확충이다. 사회적 적정의사수가 시장기구의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의 질적성장을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

□ 김홍식교수 고별사

“영원한 제대인으로 남을 터”

우리 유행가에 ‘떠날 때는 말 없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마는 떠나는 사람은 그저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깨끗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停年으로 강단을 떠나시는 마당에 그저 조용하게 이 캠퍼스를 떠나가고 싶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정년퇴임식이란 의식과 또 여러분들의 축하와 위로를 받고 보니 도리어 요란스러운引退가 되어버려 이 더운 날씨에 학교당국은 물론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40년에 가까운 강단 생활을 오늘로 마감하고 그동안 정든 이 강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제주대학교에 발을 들여 놓았던 젊은 그 시절만하여도 정년이란 것에 대하여 별로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먼 훗날의 이야기요 또 나와는 무관한 남의 일 같이 생각되었으니까요. 또 정년의 그 나이까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지는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을 뿐더러 설사 그때까지 산다 하더라도 이 제주대학교에서 이렇게 정년까지 맞게 되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 정년을 현실로 맞은 이 시점에서 그동안 지내온 그 말

은 세월들을 되돌아 볼 때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감회가 벅차 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는데 그 수많은 세월을 이 제주대학교라는 캠퍼스에서 인생의 애환과 저의 생의 대부분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만나는 것은 언제나 헤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倉者定離라는 말과 같이 만남과 헤어짐은 언제나 상호表裏關係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헤어짐은 만남보다는 어딘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제 정년을 맞고 강단을 떠나시는 저의 심정도 조금은 착잡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저 담담하고 평안하고 또 출가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길을 가다가 일시에 그 짐을 내려 놓은 것과 같은 출가분함이요 또 그 오랜동안의 공직 생활을 무사히 다 마쳤구나 하는 안도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년이란 공직기능의 시계바늘이 이제부터 일시에 정지



됨을 의미함이지요. 또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권한과 특권이 한꺼번에 상실된 그저 평범한 보통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후의 상실감과 허탈감 등의 충격을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교수로서 평생동안 강단을 벗어나 보지 못한 저로서는 평소 이 권력과 권세 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 왔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은 서운하고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를 가르친다는 특권의 상실이라고나 하겠습니까.

또 이 停年이란 두 글자에서 연상되는 것은 공직에서의 引退요, 인생의 黃昏이요, 인생의 斜陽길, 그리고 또 인생의 마침표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미지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모든 강의에 출석하면 좋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에 빠지지 말았으면 한다. 한 두번 빠지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첫 강의에 빠진 학생은 그 강의에 절반을 빠진 셈이나 다르다. 시작이 호지부지하면 아무일도 해낼 수 없다. 아니 그런 정신을 갖고선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다.

2000년대를 이끌어갈 제대인!

늘 첫 강의를 대하는 신선함과 부분 각으로 강의에 참석하자. 그 강의가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누가 장담하겠는가?

마지막으로 제대인에게 과감하게 시작이 갖는 참 의미를 통해서 시작하는 자세로 2학기를 맞이하자. (김보근 국문1)

9월중 학사일정

△19일~25일: 졸업작품전(산업디자인학과) △28일: 제2학기 수업준수 1/3선 △30일: 종합시험(교육대학원) △월중: 제2학기 동료상담자 양성프로그램운영(학생생활 연구소), 종합시험및 외국어시험(대학원, 교육대학원), CEBS방송제(교육방송국).

특자의소리

‘특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만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에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격려의 목소리들을 담은 독자 참여공간입니다. 늘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보관: 30대내외, FAX: 56-2204)

강의 빠지지 말자

‘한번쯤은 괜찮겠지’는 금물

시작이 반이라고 어떤 일에 착수만 하면 반 이상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그만큼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보니 2학기가 시작된지 1주일이지났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1주일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는지 새로운 각오를 다졌는지 모든 아라인이 멋진 2학기를 위해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1주일동안 몇 강의실에 들어가면서 난 우리 아라인에게 실망을 했다. 첫 강의부터 결석을 한 아라

인이 많은 것이다. 아예 강의시간에 들어오지 않은 교수님도 계셨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강의에 빠질 수 있었지만 첫 대면을 이렇게 보내서야 되겠는가.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 ‘처음인데 괜찮겠지’, ‘한번쯤 빠져도 봐주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들어간 강의만을 보고 내린 결론으로 해석한 것일 수 있겠지만 1학기의 경우만 보더라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늘 새학기의 일주일일은 출석만 부르고 끝내는 것이 관행처럼 돼 버렸지만 그 첫 출석이 자신에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년은 조금은 섭섭하고, 서운하고, 쓸쓸하고, 또 서글퍼지기도 하는 심정일도 아닐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정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의 세대와 같이 난세 속에서 태어나서 전쟁과 모진 난리 속에서 자라고 배우고 살아왔던 처지로서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쉼이나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공직에서 무사히 정년까지 맞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어린 중학시절 내 눈에 비친 대학생의 像은 마치 하늘의 별과도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제시대 한 국사람으로서 대학교수로도 당시 일본 경도제국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던 李泰圭박사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단 하나의 대학 즉 京城帝國大學이 일본정부에 의하여 1926년에 처음으로 설립이 되고 지금의 國語國文學科에 해당하는 朝鮮語及文學科도 설치되었으나 우리의 어학과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마저 전부 일본인이 차지하였다고 한국인 교수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주권없는 민족의 설움과 통분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다행히라도 광복을 맞고 일제식민지를 벗어난 조국이 독립된 덕택으로 이제 대학교수라는 職의 矜에도 꺼여 보고, 또 평생동안 상아탑의 젊은이들 속에 묻혀 평생을 살아왔으니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 사람의 말에 천하의 영재를 모아 가르치는 것이 인생의 세가지 樂 중의 하나라고 일러 왔습니다마는, 스승으로서 제자를 가르친다는 그것만으로도 호된 일이지 마는, 그 가르쳐 낸 제자들이 성공을 거두어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야말로 선생으로서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노릇을 한 보람을 만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에게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지위나 명예도 아

니오 다만 교수로서 이 가르친다는 즐거움과 그 특권을 상실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한 평생 걸어 온 강단 생활을 돌아 보고 조금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또 배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각기 제 위치에서 훌륭히 사회에 기여하고 제 몫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기에 그 전문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 그 전문성은 권위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교수는 그 권위 위에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한번 교수를 지낸 사람은 뒤에도 무슨 일을 하든 교수라는 칭호를 일생토록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 경력은 가진 키신저박사는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냈지만은 지금도 교수라는 소리를 듣기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년으로 비록 강단은 떠나지마는 저 또한 일생동안 교수 칭호를 듣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욱이 전직 제주대학교의 교수라는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여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막상 정년을 맞고 강단을 떠나게 되는 마당에서 느끼지는 것은 제가 오늘날까지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 영예로운 정년을 맞게 된 것은 오로지 여러 교수님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 주신 덕택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분들에 대한 보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겸허하게 살아나갈 것입니다.

이제 몸은 비록 이 정든 캠퍼스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앞으로도 ‘영원한 제대인’으로 여러분 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나마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을 제2의 새로운 탄생으로 생각하여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濟大漫評

대학 캠퍼스 여행기
1-1년

김홍식

양이나 질이나?



무·한·책·일·주·의
태평양 진공(대전·수원·김천·안산)
‘95년 환경관리특별협조로 선정

20 1/2

태평양의 나이는 20 1/2

태평양이 걸어온 50년 세월—

그러나 태평양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나아가는 진취적 도전의식과 미래 첨단사회로 펼쳐가는 실험적 실천의지가 그들의 가슴 속에 언제나 뜨겁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미와 건강을 창조하는 기업,
휴먼리네상스를 창조하는 기업으로서
생명공학을 토대로 한 정밀화학, 의학, 식품사업과
정보통신, 유통, 영상, 문화레저, 실버산업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태평양 사람들의
혈기왕성한 기업활동이 있기에 오늘도 젊은 태평양.
그 나이는 언제나 20 1/2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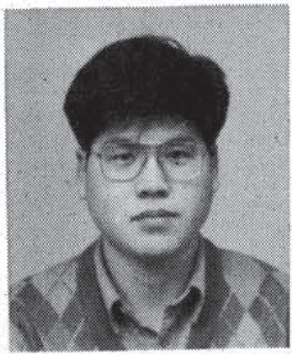


기획연재 해방50년과 한국의 과제 ⑦-8·15특별사면조치로 본 국가보안법 46년

정치적 반대파 제거에 악용 양심수 양산 국보법등 각종 악법 폐기없는 개혁은 무의미

“풍파에 쓰러져가는 집을 고치기 위해 말하는 의원에 대해서 죽이지 살리니 하는 협박장이 돌고 있는 이때에도 애국심으로 정부를 개조하라 또는 무엇을 하라고 충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국가적이며 이적행위라고 떠드는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3일이 못되어 후회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김중기의원 발언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미처 형법도 제정되기 이전인 1948년 12월1일, 제정되었다.



고 상 만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48년 5월10일, 분단의 확정을 의미하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의 민중들은 48년 4월3일을 기해 남산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미군정은 제주민중의 단독 선거 반대투쟁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14연대에 출동명령을 내렸으나 14연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여수, 순천 군 반란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합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후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운동을 전개한 노일환, 김옥주등 13명의 국회의원을 남포당 프락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그 이듬해인 1949년 한해 동안에만 무려 1백32명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11만8천6백21명을 검거, 투옥하였으며 9천여명의 군인을 구속하였다.

특히 이러한 대표적인 정치적 피해자로는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불리는 조봉암씨를 들 수 있다. 1958년 1월12일 이승만정권은 조봉암 진보당위원장과 간부 7명을 '진보당 정강이 평화통일론이 국시를 위반하고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였고 이어 조

봉암은 상고심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정권이 조봉암씨에 대해 적용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은 허울에 불과했을 뿐 진실은 1956년에 실시된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의 강력한 도전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80년 5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쿠데타 입법기구를 통해 80년 12월 26일 단 5분만에 반공법의 독소조항을 국가보안법의 틀 속으로 흡수, 통합하는 형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전면개정 함으로써 형량도 인상되고 처벌법위도 확대되었다.

그렇기에 5공화국 하에서의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를 위해 수많은 조작사건을 만들어 낸다.

전국민주학생연맹 및 전국 민주노동자 연맹사건, 반제동맹당 사건, 민주화 추진위원회사건,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전두환 정권은 공안조작사건으로 끊임없는 구속자를 양산해갔다.

87년 6월 민주 대항쟁과 연이은 건국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국가보안법은 마침내 폐기되어야 할 악법 1호로 지목된다.

특히 당시 통일민주당의 당수였던 김영삼씨는 다른 야당의 당수보다도 더 강력하게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였다.

89년 5월4일 경향신문 인터뷰.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국회법이 나 국가보안법 등 비민주 악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89년 5월12일 민주당 총재 수락 연설.

'단기적으로 비민주악법을 개폐해 법제, 제도적 민주화의 기반구축,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사면복권, 수배자 해제 등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90년 1월13일 청와대 회담

'보안법을 폐지하고 안기부법도 대폭 개정해야 한다. 보안법 폐지에 따른 문제조항은 형법과 외환관리법, 여권법 등에 흡수하자.'

그러나 92년 12월,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씨는 오히려 자신이 강력하게 철폐를 주장했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으로 95년 8월10일 현재 1천4백여명의 구속자를 양산했으며 그중 80%에 이르는 양심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뿐만 아니라 야당총재 당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온 김영삼씨는 당선 이후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바꾸어 '국



◇북 역
45년 만인
지난 8월15
일 세계 최
장기수 김
선 명 씨가
대전교도소
에서 가석
방됐다.

가보안법 철폐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속에서 광복 50주년인 올해 8·15를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조치를 살펴보면 현재의 정권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말부터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온 8·15특별 사면조치 단행예정을 접하면서 많은 시민, 사회단체는 김영삼정권이 해방 50주년이 되는 시기적 의미와 더불어 자제선거 참패에 따른 민심 수습방안으로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대폭적인 석방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8월11일 발표된 특별사면조치를 살펴보면 정부당국의 대국민 화합조치라는 역설에도 불구하고 8월10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4백65명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러한 대국민화합 조치에 역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것은 출소 만기일을 불과 20일 남겨놓고 있던 전대협 제5기 의장 김중식씨를 비롯하여 전여형기가 제 1년도 남지않은 13명의 석방 대상자가 8·15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는 전체 양심수 석방자 25명에서 비율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금번의 사면조치도 그동안 역대정권이 상투적으로 사용하였던 전형적인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노맹사건이나 국제 사회주의자 그룹사건과 같이 국가보안법으로 대거 구속된 조작사건 연루자들이 이번 사면조치에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그나마 93년 대선직전에 발표되어 김영삼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이른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의

경우에도 만기 출소일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 전 민주당 총재 비서관 이근희씨만이 가석방되었을 뿐이다.

이속에서 그나마 주목받는 점은 그동안 국제 엠네스티와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끊임없이 한국의 대표적 인권실태 사례로 지적받아온 45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의 석방과 같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43년을 복역한 전 참모로 안학식씨, 그리고 39년간을 복역한 한창호씨가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석방의 뒷면에는 38년째 복역하고 있는 우용각씨를 비롯하여 20년 이상 복역 장기수가 24명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60세가 넘는 고령 수감자 42명중 7명, 그리고 30년이상 장기 복역자 14명중 3명만이 이번 사면조치에 포함되었을 뿐인 사실앞에서 현재 김영삼정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국민 화합조치 운운은 전혀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이 분명하다.

한편으로 이러한 양심수의 기만적인 사면조치와는 달리 그동안 김영삼정권 출범이후 각종 비리와 뇌물수수 사건등으로 연루되었던 구여권인사와 재벌 총수,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박철언씨와 박대준씨들은 파격적인 사면복권의 대상자가 되었다.

그렇기에 금번의 8·15 특별사면조치에 대해 모든 시민, 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8·15 특별사면조치는 실질적 내용은 전혀없는 체무자들이 이번 사면조치에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그나마 93년 대선직전에 발표되어 김영삼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이른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의

과학 이야기

농업과 환경문제

한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논농사 축산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된다. 작년 가을 독일에서 열렸던 국제학회에 참석했다가 Marks-Frank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어느 박사님이 지구환경과 메탄가스 생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세계지도상에 분포도로 그려냈다. 인공위성과 각종 첨단시설을 활용하여서 오랜 연구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자료인데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일반적으로 메탄가스는 유기물이 발효되어 생기게 된다. 상식적으로 논밭에서 무슨 메탄가스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지 만 아시아 지역이 메탄가스 생성량이 제일 많은것으로 발표했다. 원인은 논밭이 많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 물도 빠진 상태에

서는 적당한 햇빛을 받으면 땅속에 있던 유기물들이 발효되기 시작한다. 이 유기물에는 벼짚도 있고 소똥지 두엄도 있으며 각종 퇴비류도 있다. 이러한 유기물들이 땅속에서 발효되면서 미생물에 의해서 메탄가스가 생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야 수확후 몇달만 지나면 추운겨울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다소 적을 수도 있겠지만 동남아등 상하의 나라에서는 그 농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성된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현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나에 따라서 대응책도 달라질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지구환경규제를 위한 서곡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메탄가스생성 규제가 올때는 자연히 논농사에 영향을 주게될것이고 논농사가 위축될 수도 있겠다. 물론 대안으로 메탄가스 생성이

낮은 퇴비나 발효가 안되는 유기물이 개발된다면 문제는 다를 수도 있다. 아롱든 농업환경조건이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논밭에 퇴비로 쓰이고 있는 소나 돼지 두엄도 환경이라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두엄중에 있는 질소, 인, 유허성분들은 대기중에 휘발된후 다른 화합물이 나 원소와 재결합되어서 비가올때 황산, 인산, 질산등 산성비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 때문에 두엄중에 있는 질소, 인, 유허의 함량을 어떻게 줄일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구미여러 나라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환경을 고려한 축산이 현재도 그런대로 잘 되고는 있지만 그 차원이 단순히 수질오염이나 냄새등 일차원적인 요인에서부터 2천년대에는 어떤 요인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화·국제화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에 적응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을것 같으며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단순히 농사만 짓던 시절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낙원의 시대였던 것처럼 느껴진다.

〈이남형 식품개발연구원〉

시사용어

한·미 담배양해록

지난 88년 한·미간에 체결된 담배양해록은 한·미 행정협정(SOFA)에 버금가는 불평등협정이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담배세율을 바꿀 때마다 미국의 동의할 얻어야 하고 조세주권까지 행사하지 못할뿐 아니라 무절제한 담배광고와 판촉활동을 규제하더라도 사전에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온통 불평등한 조항으로 돼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청소년 밀집지역의 담배자판기 규제나 건강관련 경고문을 강화해 국민 건강상의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실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종량제 방식인 현행 담배소비세를 종가제체계로 바꿔 가격에 따라 세금을 자동화하고, 오는 9월부터 발효될 국민건강증진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담배양해록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협상은 종전 일률적으로 갑당 4백60원을 부과했던 담배소비세를 종가제로 바꿀 경우 국산보다 비싼 미국담배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져 판매가 불리해진다는 미국담배업자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부딪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흡연의 해독을 줄이기 위한 정책노력인 금연과 담배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미국에서도 클린턴 정부가 '마약'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흡연억제정책을 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모두는 자존을 갖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지난 8월22일부터 담배양해록 개정 협상을 벌여온 한·미 두나라 대표단은 25일 담배의 조세와 광고판촉 규제를 한국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이 양해록은 전면 폐지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성과에 만족할 수만은 없으며 특히 내·외국산 담배의 세수인 분배문제를 미국의 요구대로 타결지은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외국산 담배 불매운동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주권은 회복됐지만 국내담배시장은 내·외국산 담배에 똑같이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외국산 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12%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 남은 것은 시민운동과 흡연자 개인의 자각뿐일 것이다.

(임현주 기자)



무·한·해·인·주·의
태평양 평화재단(대전·수원·김천·안산)
50년 환국(환국)사업소 선정

내 안에 상드가 숨어 있다

우리나라엔 왜 여자 대통령이 없을까?

우리나라엔 왜 여성 지도자가 적을까?

21세기가 다가옵니다.

여학생 여러분의 숨은 뜻을 펼쳐주세요.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기업-

태평양



조르주 상드 1804년~1876년

19세기 프랑스 작가로서 여성인권과 정치성을 띤 많은 작품을 썼으며 그중에서 당시 감시 대상이 된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금도 연구되고 있다. 그녀의 삶은 여성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1회 켈쥘렛 선발

태평양「여대생 논문」공모전

1. 참가대상

전국 각 대학 재학중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2. 응모기간

8.11.20 ~ 11.30

3. 응모주체

4. 응모방법

- 분량 : A4 용지 25매내의 분량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제출)
- 2장내의 논문내용요약 별첨
- 논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95년11월현재)
- 자기소개서 1부 (여권용사진부착)
- 연락처가난한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5. 시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우수상 3명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장려상 5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6. 입상자 발표

1996년 12월 23일 개별통지

7. 제출처

-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75-2 성원빌딩 태평양강화문화재단 사무국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전 도착분에 한함)

8. 기타사항

- 당사입상자 우대 (인턴사원)
- 졸업때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켈쥘렛 모임
- 수상자 전원에게 2백33원 태평양 제주농장 견학
- 출품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제출논문은 다른 강행물이나 논문에 발표되지 않아야함
-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 강화문화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02)749-2388~9)

나의 제안

국제교류활성화 서두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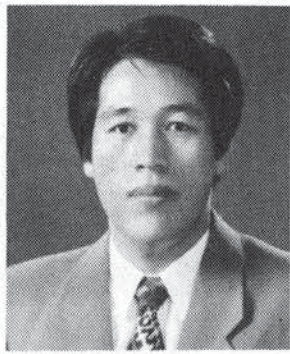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는 용어가 실감날 만큼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다. 대학교 예외는 아니다. 특히 서울은 물론 지방의 명문 사립대학들이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이다. 이는 사립대가 국립대에 비해 제도와 조직개편의 자율성, 재정운영의 탄력성, 그리고 정책결정과 추진의 효율성이 월등히 앞선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며 많은 사립대가 입학관리자를 신설했는가 하면 기업적인 경영과 홍보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명실상부한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 국립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특별부서를 신설하는가 하면 다양한 전공분야에 걸쳐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학의 특성화, 다원화,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

특히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이 기울이는 노력은 대단하다. 교수들의 해외연수 정도뿐만 아니라 인적외국인 교수와 외국인 교수의 유치는 물론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호방문 학업으로까지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자매결연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협약을 통해 외국대학과의 상호협력관계, 북수출입, 교수강의교류제 등이 도입되고 있다. 얼마전 모 중앙일간지에 소개되었다시피, 설립된지 15년 남짓된 규모도 크지 않은 지방의 한 사립대가 '학점교류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백여명의 학생을 교류시키고 있어 화제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이 사립대학과 이웃해 있는 C국립대는 상대적 위기감을 느끼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교수연수기회 확대

다행히도(?) 제주대학교는 아직 옆에서 우리를 위협할만큼 발전과 개혁을 추구하는 경쟁대학이 없다. 그러나 요즘처럼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1년을 머뭇거림은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후진을 가져올 수 있다. 늦은감이 있지만 급변하는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일정 수의 교수들에게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게 된 것은 껍이나 찰된 일이다. 그리고 발전기금을 늘리기 위한 학교당국의 꾸준한 노력으로 그 몸값이 날로 증가하는 것 또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돈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 제주대학교의 열악한 연구 및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우선 투자해야 할 부분이 어디 한두가지가 아니라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것중에 하나가 국제교류의 활성화이다. 그 이유는, 많은 대학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교류의



변종민
영양교육과 교수

진정한 활성화가 바로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대학교 현재 3개국 6개교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단기간의 상호방문, 학술자료교환,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등의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프로그램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교류라 할 수 없다.

대학간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인적교류를 통해서 상호간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은 물론, 필요하다면 행정직원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 대학교에 머물며 체험적인 교류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수는 각자의 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며, 학생은 어학실력의 증진은 물론 전공분야의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며, 직원은 선진대학의 좋은 제도와 방법을 익혀 행정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 용어가 설명해주듯, 국제교류(international exchange)는 파트너가 있는 상호호혜원칙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 배우는 입장만 강조하였지만 이제는 외국인이 우리 학교에 머물며 배운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간의 국제교류도 일종의 무역이고 외교이다.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상대도 투자하는 것이고 그 효과는 양쪽이 공유하는 것이다. 단 국가간의 무역에 흑자와 적자가 있듯이 대학간의 국제교류에도 유리한 쪽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국제교류를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학·연수 장학생 선발

제주대학교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들의 해외연수기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방학을 이용한 자료수집(1개월 정도)과 장기연수(6개월~1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되 형식적인

연수가 되지 않도록 그 선발과 평가의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해외유학 및 연수 프로그램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 일정 수의 학생을 선발해 자매결연 대학에서 1년간 유학 또는 3~6개월간 어학연수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우선 1년에 한명씩이라도 좋다. 수혜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그 선발에 따른 파급효과를 생각해 보자. 다양한 전공에 걸쳐 수많은 학생들이 학구열을 불태울 것이고 이로 인한 면학 분위기와 조성과 유학분위기의 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이 제도는 선발대상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만 30세 미만의 졸업생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진정한 인재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발의 엄격성과 공정성이다.

셋째, 외국인 교수(객원교수)가 아닌 학생의 유치도 병행하는 적극적 의미의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우려, 즉 외국인 교수와 학생을 위해 우리가 많은 경비를 지출한다는 비판과 과연 외국인들이 제주대학에 매력을 갖고 오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모두 기우(杞憂)이다. 자매결연제도를 잘 운영하면 우리대학의 교수와 학생을 외국에 파견하는 반대급부로, 별도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서로가 상대적 경비를 부담하는 상호지원 교류방식이다. 육지부의 많은 대학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해 국제교류를 실시해왔고, 보통 그 결과는 우리측 대학들에 유리한 편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서구 선진국

에서는 교류대학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중에 하나가 주거 및 삶의 환경인점을 감안할 때 제주대학교는 그 어느대학 못지 않게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전담부서 설치 시급

이상의 내용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마침 첨단시설을 갖춘 외국어 교육관이 개관되어 각종 외국어 특강이 성황리에 진행되는 상황이고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국제교류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전담부서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지원만으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국제교류의 탁월한 식견(vision)을 갖고 외국어 구사능력은 물론 협상력과 추진력을 지닌 책임자의 지휘하에 여러 전문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국제교류 관련 행정부서는 적어도 ①교류대상기관 선정, ②각종 교류협약 및 협약체결 준비, ③해외파견에 따른 선발계획 및 시행, ④외국인 교수 및 학생들의 체류지원, ⑤상호학점 교류제, 북수출입 등 장기적 교류업무의 기획 및 추진, ⑥교류대학과의 각종 교육, 연구상 황 비교분석 등의 업무역량을 지녀야 한다.

개인은 물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동적인 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늦추고 머뭇거림 여유가 없다. 하루빨리 우리대학교 국제교류의 진정한 활성화가 이루어져 명실공히 지구촌시대의 선진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고대한다.



『제주바다의 이미지』란 작품으로 제25회 제주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데 이어 지난 7월 통상부 주최로 열린 제25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서 중수기업의 공예품전문가들과 겨룬 장려상을 받은 우리대학교 김재훈(산대3)·김수진() 학우를 만나

보았다.

▲수상 소감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작품이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실용화되지 않아 아쉬웠다.

▲이전에 입상한 작품인 '제주바다의 이미지'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나의 학문 나의 연구 —‘식용작물학’

제주 환경에 적합한 식용작물 연구 전념

농작물의 분포는 온도·일조·토양수분·토양공기·토양산도·토양경도·토양비옥도 등에 의하여 재배되기 때문에 지구상의 위치와 계절에 따라서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재배양식 또한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전세계 1백90여개국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의 종류·재배계절·재배양식은 각각 달라지게 마련이다.

재배면적과 수량을 기준으로 보면 밀·벼·보리·옥수수·콩 등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어 세계 5대 식량작물이 되어 있으며, 인류는 이들 농작물에서 70% 이상의 에너지를 얻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60~65일분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지만, 식량증산에 인구증가를 따지지 못하고 있고, 트란스 등 제3세계에서는 하루 평균 3만5천명의 어린이들이 굶어죽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어 FAO를 중심으로 기아문제와 식량증산에 가일층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주곡인 쌀은 전세계 생산량의 2%수준이며, 식량작물 중 5곡은 벼·보리·콩·조·수수이고, 양곡자급율은 29%에 불과하다.

WTO체제 출범이후 생산단가가 낮은 농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과 식량작물 마케팅에 깊은 연구가 요구되는 추세이다. 제주도는 기후 토양이 본토와 다르기 때문에 재배되는 농작물의 종류도 크게 차이가 있다.



박양문

60년대 제주도의 여름 작물은 콩과 조가 반반이었고, 겨울 작물은 보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고구마·맥주보리·유채가 제주도의 3대 환금작물이 되어 있었으며, 이 무렵 제주도 해안을 따라 83개 전분공장이 있었고,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선일포도당공장이 서귀포에 건설되기도 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구마·맥주보리 등의 지위가 뒤로 밀리게 되었고 지금은 감귤·감자·맥주보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 중 중요한 몇가지만 열거하면 고구마의 모자익병·제주도 토양의 근류균 분포·재래만생 옥수수의 유전형질·감자 2가지의 필요요소·주요작물의 엽흡산도·재래종 동부수집종·재래종 수수품종·재래종 조품종·제주지방 재래종 옥수수품종의 특성·제주지방 재래종 감자품종·재래종 옥수수 품종의 입색 유전형질·귀리의 생육 및 수량·재래종 기장품종의 특성 등을 연구하는 등 제주도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작물을 중심으로 연구해왔다.

그러나 미래의 농업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전세계가 장벽없이 공존공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에서 옛부터 전통적으로 재배해온 재래종 농작물의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그 특성과 수량성을 연구하는 데도 힘 기울여왔다. 수집된 작물별 품종수는 조 33품종, 동부 6품종, 강남콩 8품종, 수수 2품종 등이었는데 특히 조 33품종의 수집은 자랑하고 싶은 실적으로 생각한다. 수집된 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 종자은행과 우리 대학교 병동기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습과 작물육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감자에 치중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경기도 수원지방의 무상기간 1백80일에 비교하면 제주도의 무상기간은 90일이나 더 길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을 감자를 재배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제주도이다.

앞으로는 제주도 농촌진흥원과 협력해서 인공씨감자의 보급·다수성 품종선발·품종별 전문 품질·가공공장 설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중점 연구를 계획한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메밀이나 파종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미래의 농업은 정밀농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농업용수의 확보방법과 수질·수온 등에 대해서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연구에 참여할 생각이다. (농학과교수)

인터뷰 전국공예품대회서 입상한 김재훈·김수진 학우

“공예품 전문기업 경영하고 싶어요”

=교수님의 작품전에서 쓰다 남은 소라 껍데기를 주워다가 그것을 그냥 깎아 봤는데 너무 예뻐서 작품화하게 됐다.

▲제주 공예품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타지방은 공방·기업위주로 공예품이 개발되고, 제품 역시 부피가 작고 세트식으로 되어 있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들고다니기도 좋고 판매장이 많아 구입하기도 쉽다. 그러나 제주산 공예품들은 제품 자체가 크고 무거워서 여행중에 들고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공방이 영

세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상품화 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제주산 공예품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시피한 공예품 공장을 늘려 타 지방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제주에서 직접 제작하여 제작비를 절감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하여 실용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제주지역 관광지 곳곳마다 그 관광지의 특성을 살린 공예품을 제작·판매해야 한다. 그러면 관광지의 특성도 살릴 수 있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제주산 공예품이

추억 거리로 남게 되어 다시 제주를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제주산 공예품의 문제를 해결할 주안은 뭘이냐 해도 제주도인이며 그중에서도 재대인이라 본다. 제주공예품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를 비롯한 관광업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졸업한 후에 제주산공예품 전문기업에서 경영하며 공예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싶다.

(고봉수기자)

제주섬의 노래



좌혜경 편저

마음이 마를 파면서 늘상 접하던 황금을 알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언제나 같이 존재하고 생활하던 제주인의 삶 그 자체가 노래화 된 것들이어서 그렇게 귀하고 감동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인 루스 베네딕트씨가

『국화의 칼』에서 일본인의 민족성을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안목으로 파헤쳤다면, 일본인 다카하시는 제주섬 노래를 역사적인 지식과 노래가 불러지던 사회적 상황이 비추어 객관적인 안목으로 조망·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제1부 제주도민요/다카하시(高橋亨)저, 좌혜경 옮김

제1장 제주도/제2장 제주의 민요/제3장 섬여자/제4장 밭들·방아노래/제5장 양떼요, 망건요, 해녀요./제6장 자장가/제7장 농요/제8장 京城의 노래/제9장 밭노래/제10장 土俗謠와 대장요/제11장 진상과 진상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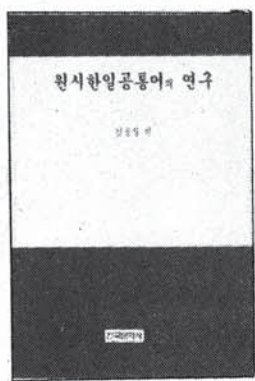
제2부 제주도민요에 대한 문헌 해제/좌혜경

1. 1920~1950년대 / 2. 1960년대 / 3. 1970년대 / 4. 1980년대 / 5. 1990년대

발행처 국학자료원/값 8,000원

원시한일공통어의 연구

김공철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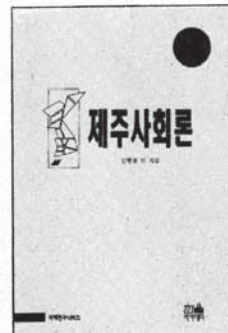


이 책은 주로 서기 3세기의 위지동이전의 국명, 지명, 관명, 기록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은 뿌리의 언어이며 일본어는 한국어에서 갈라져 나온 딸언어임을 논하고 있다.

1. 서론
2. 원시한일공통어의 영역
3. 원시한일공통어의 성격
4. 원시한일공통어의 음운
5. 원시한일공통어의 문법
6. 원시한일공통어의 어휘
7. 원시한일공통어의 방언과 딸언어
8. 결론

한국문화사/값 10,000원

제주사회론



신형철·정대연·김석준
유철인·이상철·조성운
김진영·이창기 지음

서장, 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

제1부 인구 및 가족

제주도의 인구성장/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

제2부 농촌과 도시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제주마을의 공동생활권으로서의 성격과 그 변화/제주도 농촌의 계-사회통합의 기제인가, 갈등의 기제인가?

제3부 계급과 권력

제주도의 계급구조/제주시민의 정치참여와 투표성향/제주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제주도민의 지방자치의식

제4부 산업 및 노동

제주사회변동론 서설-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제주시 운수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의식구조

제5부 문화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도전·적응·초월의 메커니즘

제6부 사회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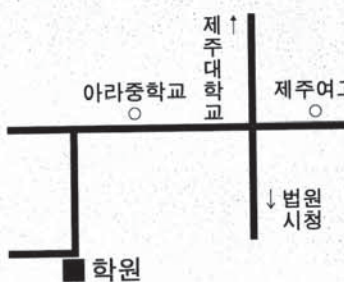
제주도 근대사회운동의 재조명/개발과 환경, 그리고 농촌공동체의 붕괴-제주도의 골프장건설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한울/값 20,000원



한라자동자학원

- ▲아라동, 제주대 통학로에 위치 / 편리한 교통
- ▲빠르고 친절한 운전교습
- ▲필기시험 강의
- ▲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동쪽)

☎ 55 - 9900
56 - 7755

서평 『탐라국사료집』- 고창석 편저

조선왕조 이전 제주 관련 국내외 사료 거의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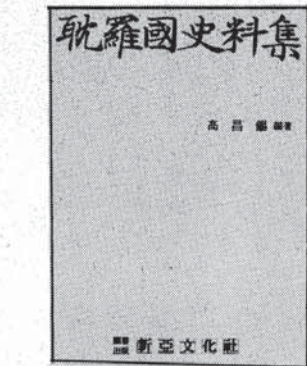
난해한 한문 번역해 원문과 함께 실어 독자이해 도와

누구든지 역사에 관한 논문이나 記事를 작성해 보면, 우선 첫번째로 부딪히는 일이 관계된 사료를 수집하는 어려움일 것이다. 한 개인이 해당 사료를 史書에서 일일이 찾아내거나 매우 힘들고, 시간경리는 작업이며, 또한 모은다고 해도 누락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대별 주제별로 잘 정리된 사료집을 출판하고 보급하는 것은 국가·지역의 역사 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다.

그리고 역사 사료를 수집하는데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등장한다. 우리는 어떤 과거 사실에 대한 진술이나 文書가 있으면 이것을 무턱대고 진실한 과거 사실들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거자료는 정치권력 또는 이에 대항하는 집단의 이해관계, 욕망, 편견 등의 관점에서 서술되거나 주장되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과거에 관한 진술과 사료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사료비판(historical criticism)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사료비판에는 내적(internal) 비판과 외적(external) 비판이 있다. 역사 전문가들에 의한 이런 내외 비판을 거쳐 믿을 수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만, 사료들은 정당하게 이 세상에서 행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료는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집단에 의해 믿을 수 있다는 공통된 신뢰성을 전제해 과거 자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 흔히 무시되는 한 예들 들어 보면, 고조선이 고대 동북 아시아의 대제국이었다고 주장하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읽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책들이 근거하고 있는 사료들이 후대의 조작되거나 정제불명한 것이어서, 곧 사료로서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책들에 관해서는 대학 강단



이나 학계에서 언급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자료에 대하여 무턱대고 믿고 이용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믿을만한 것인지 따져보아야만 하고, 신빙성이 있다면 누가 언제 무슨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서술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예로 북한의 근대·현대사에 관해서도 그 근거된 자료들의 성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즉 그 자료들의 연대, 표절, 고의적 동일시, 추측상의 교정·저작자

의 진위, 동기와 목적, 의명성, 표절성; 텍스트 비판 등이 선행되어야 그 신빙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고창석교수가 펴낸 『耽羅國史料集』은 국내 사료들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역사책들을 찾아서 耽羅國에 관한 사료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집된 사료들은 3세기 말 陳壽가 편찬한 『三國志』魏志東夷傳 韓條의 '州胡'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15세기에 편찬된 『高麗史』의 탐라국에 관한 記述들이다. 그러므로 조선왕조 이전의 제주도에 관한 역사사료들은 거의 이 책에 편입되어 수록되었다고 하겠다. 이것은 결코아는 간단한 작업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저자 서문에서도 밝혔지만 이 책은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요구했던 勞苦的 결실이었다. 또 이 책의 장점은 편저자가 난해한 학문을 번역해서 原文과 대조시켜서 독자로 하여금 참조에 편하게 했으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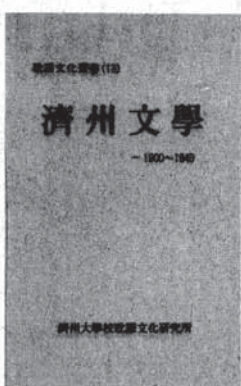
책의 말미에 年表라든지 제주도에 과편되어 온 중앙관리의 명단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놓았으며, 그리고 간단한 제주 略史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만 했을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책의 활자도 큼직해서 보기에 좋게 되어있다. 그리고 여기에 수록된 사료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역사적 자료들의 공통된 신뢰성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들이 선택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는 더 이상 사료를 찾아야할 걱정이 항로 연구자에게 덜어지게 되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東文選』에 수록된 「星主高氏家傳」과 저자 불명의 「영주지(瀛洲誌)」는 사료의 내적 비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 세상 모든 일들에 모든 조건들을 갖추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명한 일이라면, 적어도 이 책은 탐라국의 사료에 대한 항로 연구자의 걱정을 풀어주어, 앞으로 연구를 쉽게 진척시켜주게 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여튼 고창석교수가 이 책을 펴낸 것에 축하를 표하며, 또한 이를 기회로 하여 제주 항로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할 일은 물론 同學의 몫으로 떨어질 책임도 질실하게 느끼게 된다. **진영일(사학과 부교수)**

새로 나온 책

『제주문학(1900~1949)』

- 탐라문화연구소



20세기 전반기의 제주도 출신 신지식인들의 문학작품을 모아 엮은 『제주문학(1900~1949)』가 탐라문화연구소(소장 김영환 국어국문학과 교수)에서 발간됐다.

탐라문화총서13집으로 내놓은 이 책은 ▲가사(歌辭)=△김문준의 「농부가」 1편 ▲시=△김지원의 「거지할미」 등 27편 ▲소설=△이영복의 「발달님」 등 12편 ▲편론=△김명식의 「문필생활십년」 등 2편 ▲가사(歌辭)=△강관순의 「해녀의 노래」 1편 등이 실려 있다.

이 책에는 또한 연구의 자료로 삼기 위해 김익옥의 시 37편과 오 본득언(吳本篤彦), 이시형, 이영복 등의 소설 3편을 일여 원본으로 권말에 게재하고 있다.

『산경논집』 9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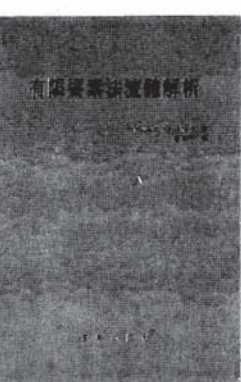
- 관광산업연구소

관광산업연구소(소장 김태보 경제학과교수)에서는 지난 8월초 『산경논집』 제9집을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경제불황하의 일 본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부총청 경제학과교수, 김법국 경영학과교수, 서현진 회계학과부교수) △출범하려는 그린라운드와 우리의 대응자세(현학술 경영학과교수) △한국 자동차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문원석 무역학과 교수) △마케팅 경로 결정(황용철 경영학과교수) 등 모두 17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유한요소법 유체해석』

- 김남형교수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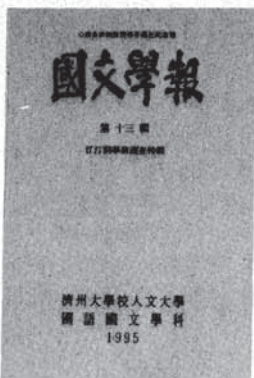
김남형(해양토목공학과)교수가 지난 4월15일 원창출판사를 통해 『유한요소법 유체해석』이라는

번역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일본의 대표적인 수치 유체역학의 권위자인 mutsuto kawahara박사의 저서를 번역한 것으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유체의 해석수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실지적용 방법을 명쾌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문학보』 13집

김홍식교수 퇴임기념호



『국문학보』 제13집이 김홍식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형식으로 지난 8월24일 국어국문학과(학과장 김상조 부교수)에 의해 발간됐

이책에는 ▲학분분야의 △제주도방언의 접두사(강영봉 부교수) △18세기 국어의 다의어 연구(김태곤 부교수) ▲현대문학분야의 △강금종론(김영화 교수) △한국 현대문학의 세 측면(김병택 교수) △비유의 의미 이동 방향과 하위 유형설정(윤석산 부교수) △인연 찾기의 담론구조와 역사미학(안성수 부교수) ▲한문학·고전문학분야의 △『鶴山閑言』연구(김상조 부교수) △제주설화 일고찰(허춘 부교수) △중세 시가의 전개와 미의식(허남춘 조교수) △도산십이곡과 자연(손오규 전임강사) 등 모두 10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또한 지난 94년도에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실시한 학술조사 결과를 「사회배경」 '방언' '설화' '신앙' '민요' 등 다섯분야로 나눠 실고 있다.

『백록어문』 11집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학회(학회장 현용준 국 어교육과교수)에서는 지난 8월초 『백록어문』 제11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제11집에는 △노비 매매문기의 이두문과 이두해독(오창명) △시적화자와 작중인물의 욕망구조 연구(양영길) 등 4편의 논문과 함께 특집으로 '학술조사 성과와 과제'(강정식 오창명 최혜경 현승환 문무병)를 다루고 있으며 권말에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학술조사보고'도 실고 있다.

□ '제주프레비엔날레'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

큰 실패인양 매도하긴 아직 일러
주최측, 열의보이지 않고 책임회피 하는것은 문제

○...이 글은 제대신문 지난 8월 22일자 5면에 실렸던 김유정씨의 '프레비엔날레, 평가와 전망'이라는 글에 대한 반론으로 투고된 것이다. (워은이 씀)

이번 프레비엔날레 행사는 김유정씨의 생각대로 무리하게 개최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래할 문화의 시대에 문화 제주를 향한 서곡(序曲)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주프레비엔날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라는 하지의 글은 편견으로 가득차 있다. 김씨의 글은 주최측이 매우 거만하고 명예욕과 개인적 이익에만 몰든 사람들로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게한다. 행사에 참가한 국내외 작가들까지도 그로 인해 매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망 또한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식의 아니꼬운 비난으로 끝을 맺고 있다.

김씨는 코끼리를 더듬는 장님이 다. 매우 근시안적이며 미래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다. 김씨는 프레비엔날레의 파상적인 몇몇만을 관찰하고는 펜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철저히 등시하고

있다. 과연 김씨는 프레비엔날레의 속을 들여다보려고 했는가! 그저 신문지상에 떠도는 형식적인 기사들과 전시장에 와서 대중 물러난 후의 느낌만을 가지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예술자시대를 열어야 하느니라는 글을 쓰고 있다. 과연 김씨는 프레비엔날레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랬다면 김씨의 그런 편견으로 가득한 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김씨의 지적대로 사실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무척 많은 어려움과 실수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김씨의 지적처럼 주최측의 오만과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보면 우리들 모두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지방행정을 아주 무능력하게 이끌어가는 행정관료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무관심과 불감증들 등등 이러한 우리의 무지(無智)에서 나온 것이다.

행정관료들은 이번 행사기간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시대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주도가 먼저 나섰던 것이

며 바로 남이 아닌 우리 제주도가 주관한 행사였다. 여기서 제주도를 이끌어가는 계층은 우선적으로 지

방화시대의 주역인 지역공무원과 관료들이다. 제주도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번 행사기간동안 도에서는 조그만 도청 건물에 모이게 하고 그저 책임회피에만 그리고 형식에만 치우친 감이 있다. 행사 하루 이틀 전날 사무실에 찾아와서 무엇이 어저었노! 라고 물어보려는 군소리들만을 늘어놓았다. 도지사 또한 그저 한 두번의 얼굴만 행사에 내밀었을 뿐이다. 2000년대 제주를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분이 국제행사에 얼굴만 내민 것 뿐이다. 행사와 관련있는 행정관료들에게 "당신은 이 행사에서 무엇을 하겠어요?"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무어라고 대답할까. 서류철 하나 들고 방관하기만 한 그들이.

대개의 미래학자들은 정보사회의 종언을 2030년대로 꼽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래할 사회는 창조적인 문화예술이 지배하는 이미지소사이어티(Image Society)로 사회가 흘러갈 것을 예언하고 있

다. 물질이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 점차 정신적인 것들이 지배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정신적인 것들의 가치는 문화예술로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도시로 유명하고, 비엔나는 비엔나비엔날레로 인해 빛을 더욱 발한다. 제주는 과연 무엇으로 유명한가, 과연 제주가 2000년대에 도래할 문화시대에 있어서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로만 국제화니 세계화니 떠들고 있을 뿐 심지어 교통표지판에 써여진 영문표지조차 콩글리쉬로 써여진 경우가 많다.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문화의 시대에 살아갈 우리들은 우리 자존의 문화예술을 가꾸고 키워나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문화예술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95제주 프레비엔날레와 국제관악제와 같은 국제행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문화제주를 위한 생존의 일

환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제주인의 문화의식을 높일수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도 있을 것이며, 2000년대 문화의 국제도시 제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무척이나 아쉬운 점이 많은 행사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이다. 부족한 점이 많았기에 참여작가들한테도 섭섭하게 대했던 점도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감추주었다. 호주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인 줄리·에버턴씨는 소주를 마시다가 내게 말했다. "언제나 시작은 그렇지요 호주에서도 처음 비엔날레를 시작할 때는 문제가 많았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된 걸요 98년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이번엔 '섬에서 섬으로'라는 로고도 괜찮았지만 다음에는 '섬에서 섬으로'가 아니라 '섬에서 대륙으로'라는 제목이 좋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못보낼지언정 발돋움하기 위한 진통들을 큰 실패인양 매도하고 있는가. 김유정씨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당신은 제주프레비엔날레가 지방자치시대와 무관한 몇 명만을 위한 행사라 했는데 몇명은 '누구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개인의 영욕과 허세로 호언장담할 수 있는 제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이번 프레비엔날레가 그랬다는 말인가.

(이철민·윤교)

세계인의 상표 SHARP

D·A·L 시스템과 SOLVER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고 더욱 빠른
사 · 프 · 공 · 학 · 용 · 계 · 산 · 기

신세대 캠퍼스 스타일 - 샤프전자수첩 위니드



기초공학 이용 최고의 선택
EL-509G
견장소비자가격: ₩ 19,000

3(기능표시부)+10(가수부)+2
(지수부)의 LCD
·직접입력법식(D.A.L.)
·사용하기 편리한 큰 표시부와 KEY
·분수계산, 라도변환, 환수 기능 표시,
시간계산
·외형: 76×143×8.5MM(W×D×H)



2라인의 공식과 해답을 동시 확인
EL-5125
견장소비자가격: ₩ 38,000

·2 LINE DIGIT
상: 12자리 문자식 표시
하: (10+2)
·127 함수 · 통계학
·논리연산 · 최종 답안 호출
·2, 8, 16진수 변환
·프로그램 256 STEP
·장수 메모리 13개
·4개 공식 메모리



멀티그래픽 드로잉 기능의 프로그래밍
EL-9200
견장소비자가격: ₩ 79,000

·해당하고 정확한 그래픽을 위한
고성능 LCD 16×8셀
·알트 그래픽 드로잉(직교좌표, 극좌표,
방위각좌표)
·4000시 함수 · 통계학
·장수 메모리 27개
·메모리 호출 등 공학용 전기능 가능
·외형: 80×182×19.5MM(W×D×H)



32개 미터법 환산 복소수 계산
EL-556G
견장소비자가격: ₩ 25,000

·4(기능표시부)+10(가수부)+2
(지수부)의 LCD
·직접입력법식(D.A.L.)
·2진법, 8진법, 16진법 계산
·복소수 계산기능 · 32 유효숫자
·32개 미터법 환산, 장수메모리 7개
·전부 통계
·외형: 76×143×8.5MM(W×D×H)



16-Digit, 3-Line의
와이드 LCD 계산기
EL-5130H
견장소비자가격: ₩ 55,000

·수의 직관 계산기능
·프로그램 가능
·장수 메모리 27개
·통계 계산
·프로그램 1211 STEP
·242 함수



멀티그래픽 드로잉 기능의 프로그래밍
EL-9300
견장소비자가격: ₩ 99,000

·32K RAM 22,064bytes
·SOLVER 기능
·방정식 SOLVER
·99개의 방정식 저장
·방정식 반복, 누름, 그래픽 해법
·EL-9200과 전기능 공통
·외형: 80×182×19.5MM(W×D×H)

● D.A.L.이란? (Direct Algebraic Logic) D.A.L. 시스템 계산기는 수식과 기호를 앞에서부터 차례로 키를 눌러 계산하는 방식으로 더욱 빠르고 간단한 기능을 갖춘 혁신적인 공학계산기입니다.
D.A.L. System 예제 · 연산표시 예: 10+√sin30+cos45 = · 이제까지의 계산방식: 10(30sin+45cos)√ =

● SOLVER 기능이란? <예>식 A=B+C에서 식의미 A와 변수 C를 알고 있을때 변수 B를 구하려면 기존의 계산기로는 B=A-C의 새로운 식을 입력해야 했으나 SOLVER 기능계산기로는 새로운 식의 입력이 필요없이 A=B+C의 기존 식에 SOLVER 기능을 사용하여 간단히 변수 B의 값을 구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고 실용적인 기능입니다.



작다!
가볍다!
9만원대!

가격은 9만원대로 충분하다!
기능은 이정도면 충분하다!

크기는 작게, 무게는 가볍게!
이것이 신세대형 초소형전자수첩

서울: (02) 557-4278 부산: (051) 557-4278 대구: (053) 557-4278 인천: (032) 557-4278 대전: (042) 557-4278 광주: (010) 557-4278 제주: (064) 557-4278	서울: (02) 557-4278 부산: (051) 557-4278 대구: (053) 557-4278 인천: (032) 557-4278 대전: (042) 557-4278 광주: (010) 557-4278 제주: (064) 557-4278	서울: (02) 557-4278 부산: (051) 557-4278 대구: (053) 557-4278 인천: (032) 557-4278 대전: (042) 557-4278 광주: (010) 557-4278 제주: (064) 557-4278	서울: (02) 557-4278 부산: (051) 557-4278 대구: (053) 557-4278 인천: (032) 557-4278 대전: (042) 557-4278 광주: (010) 557-4278 제주: (064) 557-4278	서울: (02) 557-4278 부산: (051) 557-4278 대구: (053) 557-4278 인천: (032) 557-4278 대전: (042) 557-4278 광주: (010) 557-4278 제주: (064) 557-4278	서울: (02) 557-4278 부산: (051) 557-4278 대구: (053) 557-4278 인천: (032) 557-4278 대전: (042) 557-4278 광주: (010) 557-4278 제주: (064) 557-4278	서울: (02) 557-4278 부산: (051) 557-4278 대구: (053) 557-4278 인천: (032) 557-4278 대전: (042) 557-4278 광주: (010) 557-4278 제주: (064) 557-4278	서울: (02) 557-4278 부산: (051) 557-4278 대구: (053) 557-4278 인천: (032) 557-4278 대전: (042) 557-4278 광주: (010) 557-4278 제주: (064) 557-4278	서울: (02) 557-4278 부산: (051) 557-4278 대구: (053) 557-4278 인천: (032) 557-4278 대전: (042) 557-4278 광주: (010) 557-4278 제주: (064) 557-4278	서울: (02) 557-4278 부산: (051) 557-4278 대구: (053) 557-4278 인천: (032) 557-4278 대전: (042) 557-4278 광주: (010) 557-4278 제주: (064) 557-4278
---	---	---	---	---	---	---	---	---	---

사프전자산업(주)

[illegible]

대학종합평가 준비위 발족

11월중 예비평가결과 발표 약점 보완

96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대비해 우리대학에서는 지난 5월 20일 '자체종합평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자체종합평가 연구위원회, 자체종합평가 실무지원단 등 자체종합평가연구 수행을 위한 관련기구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평가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에대한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당국에서는 지난 6월9일 자체평가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대학 원장, 학장, 처장 등 16명을 위원으로하는 자체평가위원회와 문두길(원예학과)교수를 위원장으로 각 평가영역별로 12명의 교수로 이루어진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해 평가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체평가준비작업에 착수한 연구위원회는 지난 8월3일 제3차 연구위원회를 열어 대학종합평가의 총괄연구계획을 확정하고 세부평가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연구위에서는 평



◇96년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대비해 우리대학에서는 교육연구, 재정·경영 등 6개영역에 대한 자체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가영역별로 분담된 연구위원들이 각 영역별로 9월20일까지 수합된 평가자료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 정리한 후 11월11일까지 예비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예비평가보고서의 결과 각 평가영역별로 나타난 우리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기획위원회에서는 11월25일까지 학

무회의를 열어 취약한 영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관련부서에 개선요청을 요구하게 된다.

자체종합평가 연구위원장은 문두길교수는 "현재 예비평가를 위해 각 학과에 자료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연구위원들은 평가서식 및 도구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현재추진상황을 밝혔다.

또한 11명의 일반행정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단장 김인균 기획담당관)에서는 자체평가연구위원회와 협조하여 각 분야의 평가자료 수집을 지원하고 평가보고서 작성과 연구위원회의 연구업무를 지원, 보조하게 된다.

평가대책과 관련해 김인균 기획담당관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외부의 차등지원이 강화됨으로써 대학간 교육여건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우리대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구성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학과평가인정과 함께 대교협이 주관하는 것으로 미리 설정된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여러기준에 각각의 대학들이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을 받도록 해주는 것 외에 평가에 근거하여 교육의 질과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영역

은 학부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 설비, 재정 경영의 6개영역과 대학원으로 구분된다.

우리대학은 내년에 목포대, 부산수대, 한국체대, 금오공대 등 24개 대학과 함께 평가를 받게 된다. (김정임기자)

도 미술대전 모두 23명 입상

【속보】 제21회 제주도 미술대전에서 23명이 입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말 각 학과 사무실을 통해 재확정한 결과, 지난 8월22일자 본지에서 제주도 미술대전 입상자를 18명이라고 보도했던 것보다 5명이 더 입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대전에서 추가된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건축부문 △특선=고동우(건축3) - '나눔터·모듬마을' △입상=부희철(건축3)·이은정(건축3) - '송미경'의 대우인(건축3) - '만남', 양미영(건축3) - '공존·공존'(共存·空存).

정규토의 시험 실시 24일, 외국어교육관 등서

국제교류진흥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95학년도 9월 정규 토의시험'이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경상대학(학장 김경호 관령교수)주관으로 외국어교육관 LAB(어학자습실습실) A, B, D실 및 경상대 0109강의실에서 실시된다.

고칠

지난 8월22일자(530호) 6면 직원 동정 기사에서 전진석사무관(중앙도서관)의 얼굴사진이 잘못 게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전진석사무관

의과대 신설 학내외 한목소리

총학 "이익단체의 사욕에 저지될 수 없다" 도의회, '의대설립 건의문' 중앙부처에 전달

총학생회(회장 송창우 행정4)는 지난 8월24일 성명서를 통해 의과대학설립에 전도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대학 의대설치는 지난해 평가 점수에서 우위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타도대학에 밀려나면서 정치권의 이권다툼의 희생물로서 도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전국에서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3차진료기관이 없음으로 인해 도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설립은 더이상 각 이익단체의 사욕에 의해 저지당할 수 없는 전도민의 관심사로

써 총학생회는 도민의 숙원사업인 의과대학설립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중앙부처 방문 의대설립 필요성 설명

제주도의회의원 7명은 지난 28일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제주대의과대학설립에 따른 건의문'을 전달했다.

도의회의원들은 이 건의문을 통해 "51만 도민의 여망을 한 데 모아 96학년도 제주대 의과대학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며 반드시 성사시켜 주길 촉구한다"며 "의대설치는 도민의 염원과 아울러 지역보건향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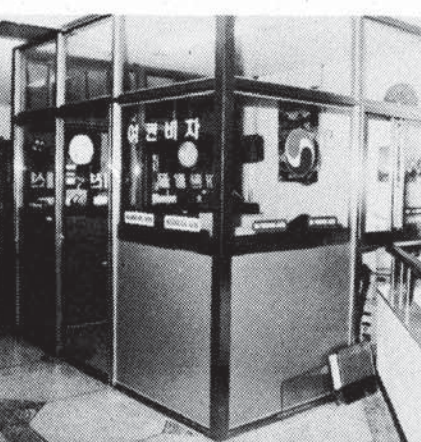
향후 실버산업기 지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제주도의 전략산업으로서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전국 시도중 유일하게 3차 진료기관이 없는 우리도는 환대평양의 중심지역 부상과 국제관광지인 점을 감안, 선진국 수준의 종합의료체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연간 2천여명이 3차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기위해 서울등으로 가야 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25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제주대 총동창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대설치 요청 건의문'을 의결시킨 바 있다.

항공권 매표소 문열어

총동창회, 지난 21일 백두관 2층에



◇지난 8월 21일 백두관 2층에 문을 연 대한항공 매표소

지난 3월부터 학생회관내 설치 예정이던 대한항공매표소가 총학생회의 반대등 이유로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8월21일 문을 열어 매표에 들어갔다.

총동창회는 지난 2월중 교직원·재학생 및 동문들의 항공표

구입에 편의를 도모하고, 여기서 생기는 이익금을 총동창회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라며 학생회관내 항공매표소를 설치 운영해도 좋다고 학교당국으로 부터 잠정적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했으나 총학생회의 반

대에 부딪혀 그동안 매표소를 운영하지 못했다.

이와관련 총학생회측에서는 "학생들의 자치공간인 학생회관에 매표소를 설치하면서 총학생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고 또한 총동창회에서 총동창회비를 신입생으로부터 징수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반대의사를 표명해오다 지난 5월18일야 종전의 입장을 철회했다.

총학생회에서 매표소설치 반대의사를 철회하자 후생과에서는 매표소 운영허가를 지난 6월1일자 총동창회에 내주었고 총동창회측에서 기계설치준비기간지연 및 여름방학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8월21일야 비로서 문을 열게 됐다.

한편, 후생과에 의하면 학생회관내 대한항공매표소의 운영 계약기간은 오는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조기타결 위한 결의대회' 개최

노조·총학 학교측에 성실한 임금교섭 촉구

우리대학 기성회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 오경숙)과 총학생회(회장 송창우 행정4)에서는 지난 8월28일 본관 현관 앞에서 '단체협약 조기타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학교측에 촉구했다.

조합원과 학생 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결의대회에는 △사회 △민중회의 △위원장 인사 △정파보고 △총학생회 성명서낭독 △성토 및 결의의 시간 △결의문 낭독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노조측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단체교섭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학교측이 공

동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결의대회에서 총학생회는 노조사업관련 성명서를 통해 "학교당국이 노동자의 자주적인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전제하고 "노조전임제, 단일호봉제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며 무노동·무임금 등을 철폐하고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학교당국에 촉구했다. (학교 당국과 노조간의 쟁점사항 다음호에 특집보도)



◇우리대학 노조는 지난 8월28일 '단체협약 조기타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단체협약 조기타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다음과 같다.
△인문대=고보형(미술 4)
△법정대=김준호(행정 3)
△경상대=강대호(경영 4)
△사범대=최정은(국교 3)
△농과

대=안경찬(농학 3)
△해양대=양정민(해양환경 3)
△자연대=박경미(화학 2)
△공과대=홍문석(전기공 2).

장학금 6백55만원 전달

지난 25일 총동창회 장학재단서



총동창회(회장 김창진 법1회졸) 장학재단에서는 지난 8월25일 본관 회의실에서 95학년도 제2학기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고보형(미술 4)학우 등 8명의 학우에게 모두 6백55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총동창회 장학재단은 89년 재단설립 이후 지난 1학기까지 5천3백83만원의 장학금을 87명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우는

1백75개 과목중 1천5백86개 설강

1백20명 이상 과밀 강의 사라져

95학년도 2학기에는 총 1천7백52개(교양 4백65개) 과목중 1천5백86개 과목이 설강과 폐강된 과목은 9.5%에 해당하는 1백67개(교양2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과(과정 정동진)에서는 지난 5월 일부 과목에만 수강신청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특정 교양과목 수강인원수를 1백20명으로 제한하고 강자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수강신청자가 몰리는 '인간과 스포츠' 등 27개 과목에 대해 수강인원을 1백20명으로 제한시키고 수강신청시 반드시 담당교수의 수강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결과 이번 학기에 1백20명 이상의 과밀강의가 사라져 수강인원수 과밀방향이 다소 호전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학기교양과목은 주간에 한국사상론, 삼박개론 등 19개 과목과 야간에 행정학개론, 미생물과 인류등 8개 과목 등 모두 28개 과목이 폐강됐다.



박사학위

▲박찬문(사학과)교수=지난 8월26일 전남대에서 "트레상스 휴머니즘에 관한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취득.

▲부만근(행정학과)교수=8월22일 건국대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상집단의 대응요인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박사 학위 취득.

▲권기린(기계공학과)교수=지난 8월21일 "금속대관내에서의 난류선회유동의 열전달에 관한 연구"로 경남대에서 공학박사 학위취득.

▲김형진(경영학과)부교수=지난 8월25일 "신제품 광고정보에 의한 소비자 이미지 변화연구"로 한남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취득.

▲강근형(국민윤리교육과)부교수=8월16일 서강대에서 "패권이론과 미-일 관계의 정치경제"로 정치학박사 학위취득.

▲김성준(행정학과)교수=8월25일 동국대에서 "지역개발행정의 민·관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박사 학위 취득.

교수동정

▲송석준(수학과)교수=지난 8월14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개최된 국제 선행대수학회에 참석하여 논문 'Spanning column rank' 발표.

▲이용필(생물학과)교수=지난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조류학회에 참석.

▲하진철(식품공학과)교수=지난 95년 7월12일부터 96년 7월11일까지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 파견근무.

▲양방주(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

한남규(물리학과)부교수=한국철학회 주최로 지난 8월17일부터 19일까지 '인간다운 삶과 철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세대에서 열린 한민족 철학자 학술회에 참석.

▲김일환(전기공학과)교수=지난 95년 7월20일부터 96년 8월10일까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파견근무.

공연·전시

로망스 연주회 개최 3일 법정대 중강당

로망스(회장 김석범 원예과3)에서는 오는 8월30일 오후 6시에 법정대 중강당에서 제8회 소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양상블개는 △합주곡으로 Rando, 태양은 가득히 △합창곡 우리들 마음에 구름 기울이게 해주세요, 유년 시절의 기행 등이 포크기타와 클래식 기타로 연주된다.

소리너울 연주회개최 1일, 법정대 중강당

소리너울(회장 김성훈 수의2)에서는 오는 9월1일 오후 6시부터 법정대 중강당에서 제9회 '신입생 소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1학년 10여명이 지난 학기동안 연습한 ▲serenade(소아곡) ▲Cuckoo Waltz(빠곡 왈츠) ▲Ich-liebe dich 등 모두 7곡을 연주하게 된다.

한폴아름 창립기념전

백두관 전시실

동아리 '그림사랑 한폴아름'(회장 김성훈 2)에서는 8월26

PCP 신청접수

학생연, 9월5일까지

학생생활연구소(소장 김병택 국어국문학과 교수)에서는 오는 9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훈련 프로그램(Peer Counseling Program)'을 실시한다.

'동료상담 훈련 프로그램'은 준상담전문가를 육성하고, 준상담전문가는 일반사람의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상담자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성장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도에 매주 1회씩 8주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9월5일까지 학생생활연구소 사무실(대학원동3층)로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사진뉴스



◇지난 8월25일 사범대학세미나실에서 거행된 94학년도 제15회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 (사진=김영범기자)



◇말로만 분리수거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보이는 쓰레기 더미가 해양대에 쌓여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고봉수기자)



○...한발 늦었지만.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기소촉구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 여러 대학 교수들이 성명서발표·농성 등으로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대학교에서도 45명의 교수들이 지난 8월23일 5·18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불에 대해 소신껏 자신의 뜻을 밝힌 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런 모습 기대합니다.

○...전에도 그랬는데요.

모든 잘못된 행동이 대학내에서는 허용되는 줄 착각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대학 학우들의 잘

못된 모습을 때문이 아닐는지.

무슨 얘기고 하니, 지난 8월13일 우리대학 법정대 강의실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몇명의 학생들이 둘러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모교수 눈에 띄어 그 교수가 몇마디 핀잔을 줬는데 그 학생들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다고.

대답인즉 "전에도 여기서 마셔왔는

주인 없나요

대요"였다.

아라인들이여! 어린 학생들이 우리대학 캠퍼스에서 벌이는 잘못된 행동에 관해서 꾸지람할때 그들이 곧 수긍하게 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주인님을 찾아주세요.

백두관 1층 구내식당 옆 습득물 안내관에 습득물품명이 지워지지 않고 자꾸 늘기만 해 학자주 창고가 만원이란데.

알아본즉, 화장실·공중전화부스 등 공공장소에서 습득한 물건들을 기재해 놓았는데도 찾아가는 학우가 없고, 심지어 주인이 명백한데도 찾아가질 않는 경우가 있다.

시계(최소한 2만원) 안경(최소한 4만원) 분실하신 학우들님, 몇만원이 겹겹으로 보이시지요.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만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이나 잘 챙기는 게 어떨지.

○...물먹은 게시판

서울·충청도지역에 홍수가 난데 이어서 우리학교 홍보게시판에도 물난리가 났다는데.

며칠째 계속 흐리고 비가음에 따라 비가리개도 없고 유리창도 깨지지 않은 우리학교 홍보게시판에 홍보물들이 비에 젖고 바람에 날려 교내 곳곳에 널려져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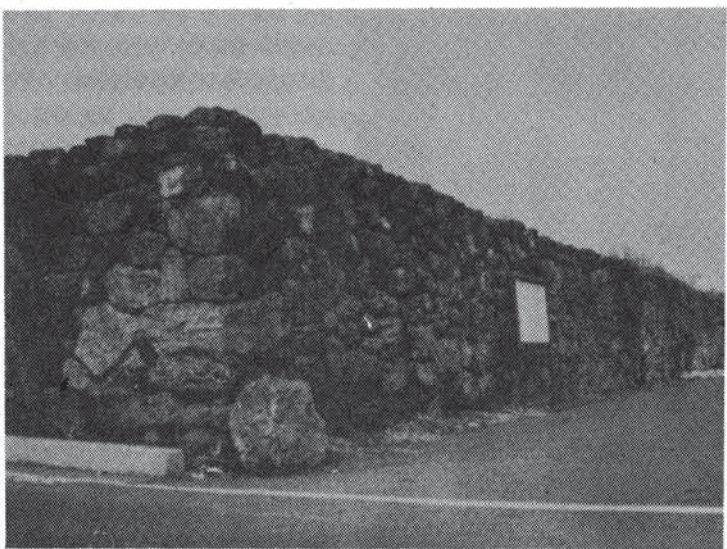
관계부서에서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홍보물을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유리를 달 용의가 없으신지요.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성 ① 연재를 시작하며

성의 역사, 곧 제주인의 수난사
우리 모습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인간이 성을 쌓게 된 이유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종족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국가에서 성을 쌓게 했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제주에 있는 성들도 마찬가지다. 제주의 성 중에서 순수 군사적인 목적에서 쌓은 성은 항파두성 뿐이다. 몽고에 항거하여 제주로 진지해온 삼별초를 고려 조정에서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고 이에 맞서 항파두성을 쌓은 것이다. 나머지 성은 물론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처음 쌓게 된 이유는 행정적인 면이 강했다.

제주의 성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항파두성과 함께 3성9진을 그 흔적이 남아있고 최근에 이 성을 중심으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복구된 대정현성 모습)



◇제주의 성은 대부분 그 흔적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쌓여진 3성9진은 그 흔적이 남아있고 최근에 이 성을 중심으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복구된 대정현성 모습)

며 그 사이에는 흙이나 잡석을 채우는데 제주의 대부분의 성들은 잡석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그 쌓아올린 돌들이 세밀하게 다듬어져 쌓여진 성이 있는 반면 거칠게 다듬어 쌓여진 성들도 있다. 3성, 즉 제주읍성, 대정현성, 정의현성은 모두 세밀하게 다듬어져 있으나 나머지는 거칠게 다듬어져 있다. 현재는 대정현성만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사라졌다.

방어의 목적이나 행정적인 요인 이외에 쌓은 성을 보면 제주민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 즉 사육하는 말이나 소·돼지 등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밭과 목장을 구획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런 이유로 성은 돌을 다듬지 않은 채 자연석을 갖고 등성등성 쌓았는데 이를 잣성이라 한다. 이 잣성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도 농촌에 가보면 밭 사이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 쌓은 성으로는 제주도의 한대사의 최대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4·3항쟁' 때 산사람(유격대)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피난민을 보호해 주는 움집을 짓는데 사용되기도 했으며 토벌대의 작전 수행시에 진지와 방호벽을 구축하는데 사용되었던 성이 있다.

4·3 때 지어진 성은 그 수도 워낙 많고 그 크기도 다양하다. 오늘날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현재에 도내의 성 가운데 문헌의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성은 조선시대에 쌓기 시작한 '3성 9진'이다. 제주도에 한하여 '목'과 두 개의 '현'으로 행정상의 그 구획을 나누었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을 쌓은 것이 제주읍성, 대정현성, 정의현성이다. 여기서 정의현성은 처음에는 성산을 고성리에 위치했는데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세종 4년(1422년)에 지금의 성읍으로 옮겨 현재 고성리에 정의현성의 어머니적인 고성성이 남아 있다. 또한, 제주도내에는 모두 9개의 방호소에 성을 만들었다. 이는 배가 들어오는 길목에 쌓은 성을 말하는데 5개는 제주읍성 주변에 설치한 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애월진, 명월진이고 2개는 대정현성 주변에 설치한 고지진, 모슬진이다. 나머지 2개는 정의현성 주변에 위치한 서귀진, 수산진이다. 여기 나열된 성들은 명확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 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슬진과 서귀진만이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돌을 쌓으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생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지역민들의 고통은 처절할 정도였다. 성이 만들어지고 허물어지던 역사는 곧 제주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성에 관한 조사가 연구는 기초적인 단계에도 접근하지 못한 상태이다. 문헌에 나타난 성에 관한 자료들만 따로 묶어 정리해 놓은 정성의 손길도 없었고,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허물어져 가는 옛 조상들의 숨결이 배어 있는 성터를 보존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물론 사진이나 자료 등이라도 남기는 노력도 거의 없었다. 최근 이런 움직임들이 학계나 도청·시청 등의 관심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제기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런 느낌이 든다. 그에 힘입어 정의현성이나 제주읍성의 일부분은 현재 복구한 상태이고 대정현성은 한창 복구중이지만 급속한 개발바람이 부는 현시점에서 볼 때 그 손길이 너무 더디다.

이에 본사에서는 제주의 모든 성터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제주의 성을 쌓게 된 역사적 배경을 문헌으로 살펴보고 그 성이 우리 제주민에게 남겨진 의미는 무엇이며, 현재 어느 정도 잔존해 있는지, 또한 어떻게 복구 또는 보존해야 할 것인지를 강구해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성이나 성터에 관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큰 배설미없이 동해안의 여러 성들을 구경하면서 한바탕 해학을 벗어날 수 있는 하루 반나절은 그야말로 배 한척, 섬 하나 보지 않는 관광대회를 경험하기도 하겠다.

블라디보스톡 항에 입항하기에 앞서 그 쪽의 예인 담당자가 바지를 입고 와서 아라호에 승선하여 항구로 직접 배의 키를 들고 입항하자 극동대학교에서 파견한 10여명 가량의 환영객들이 환영하여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축하밴드 대신에 봉고차에서 테이프를 틀러내보내는 러시아 노래로서 환영곡이 마련되었으며, 여러 하선 승객을 절하 때문에 물에 발을 내딛을 수 없는 우리는 갑판에서 서서 환영객과 상봉할 기회를 기다렸으나, 현지 사정을 하는 그쪽 환영객은 이내 사라지고, 우리는 배의 강당에 대기해서 통관 및 하선 승객을 받았다. 하선 하기가 나자 극동대학교의 한국학과 자원봉사자 학생들 10여명이 분산되어 배를 안내하고 광버스에 동승함으로써 아쉬운대로 현지 사정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주어졌다. 과거 소련 연방 체제하에서는 러시아어가 동구권과 소련에서 세계 언어였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영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톡 이틀째는 전날과 같이 여행사 버스에 탑승해서 나홋카로 나들이 나갔으나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여서 발만 새로운 경험은 없었으나 우리 해방 후 미

□ '아라호'여행기-극동대서 보고 느낀 것
학생수 비슷하나 교수는 우리보다 1.5배 많아
자율적 커리큘럼 운영 등 교육내용 앞서



◇극동대학 관계자가 우리대학교 방문단에게 대학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처음으로 실시된 멤버업 트레이닝(선상 토론)겸 극동 대학 방문을 위한 아라 캠퍼스의 교수와 교직원들의 열렬한 아라호 선박 여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우선 3박4일간 제도에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당도할 때까지 마치 날씨와 좋고, 파도도 잔잔하여서 큰 배멀미없이 동해안의 여러 섬들을 구경하면서 한바탕 해학을 벗어날 수 있는 하루 반나절은 그야말로 배 한척, 섬 하나 보지 않는 관광대회를 경험하기도 하겠다.

블라디보스톡 항에 입항하기에 앞서 그 쪽의 예인 담당자가 바지를 입고 와서 아라호에 승선하여 항구로 직접 배의 키를 들고 입항하자 극동대학교에서 파견한 10여명 가량의 환영객들이 환영하여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축하밴드 대신에 봉고차에서 테이프를 틀러내보내는 러시아 노래로서 환영곡이 마련되었으며, 여러 하선 승객을 절하 때문에 물에 발을 내딛을 수 없는 우리는 갑판에서 서서 환영객과 상봉할 기회를 기다렸으나, 현지 사정을 하는 그쪽 환영객은 이내 사라지고, 우리는 배의 강당에 대기해서 통관 및 하선 승객을 받았다. 하선 하기가 나자 극동대학교의 한국학과 자원봉사자 학생들 10여명이 분산되어 배를 안내하고 광버스에 동승함으로써 아쉬운대로 현지 사정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주어졌다. 과거 소련 연방 체제하에서는 러시아어가 동구권과 소련에서 세계 언어였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영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톡 이틀째는 전날과 같이 여행사 버스에 탑승해서 나홋카로 나들이 나갔으나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여서 발만 새로운 경험은 없었으나 우리 해방 후 미

군을 볼 때마다 구경하던 것처럼 가난한 그 곳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아라 캠퍼스의 교수와 교직원들의 열렬한 아라호 선박 여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우선 3박4일간 제도에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당도할 때까지 마치 날씨와 좋고, 파도도 잔잔하여서 큰 배멀미없이 동해안의 여러 섬들을 구경하면서 한바탕 해학을 벗어날 수 있는 하루 반나절은 그야말로 배 한척, 섬 하나 보지 않는 관광대회를 경험하기도 하겠다.

블라디보스톡 항에 입항하기에 앞서 그 쪽의 예인 담당자가 바지를 입고 와서 아라호에 승선하여 항구로 직접 배의 키를 들고 입항하자 극동대학교에서 파견한 10여명 가량의 환영객들이 환영하여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축하밴드 대신에 봉고차에서 테이프를 틀러내보내는 러시아 노래로서 환영곡이 마련되었으며, 여러 하선 승객을 절하 때문에 물에 발을 내딛을 수 없는 우리는 갑판에서 서서 환영객과 상봉할 기회를 기다렸으나, 현지 사정을 하는 그쪽 환영객은 이내 사라지고, 우리는 배의 강당에 대기해서 통관 및 하선 승객을 받았다. 하선 하기가 나자 극동대학교의 한국학과 자원봉사자 학생들 10여명이 분산되어 배를 안내하고 광버스에 동승함으로써 아쉬운대로 현지 사정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주어졌다. 과거 소련 연방 체제하에서는 러시아어가 동구권과 소련에서 세계 언어였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영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톡 이틀째는 전날과 같이 여행사 버스에 탑승해서 나홋카로 나들이 나갔으나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여서 발만 새로운 경험은 없었으나 우리 해방 후 미

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제류일에 극동 대학 방문과 저녁에는 선상 만찬이 계획되었으나, 늦은 날씨로 인해서 만찬은 선상 갑판이 아니라 강의실 몇 군데로 나눠 진행됨으로서 그나마 양쪽 대학 관련자의 자유로운 만남의 기회가 없어 그저 훌륭한 한국의 저녁 식사에 취해서 열심히 식사하고는 그쪽 대다수 일행은 사라졌고, 다만 양쪽의 총장과 관련 교수들이 한자어 통역 배석하에 배 휴게실에서 공식적 담화와 담소가 있었다.

극동대학교는 극동어문학과가 하나의 단과 대학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 학과는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베트남학, 인도학으로 세분되어 있고, 각 학과의 커리큘럼은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학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역사, 지리, 문화를 종합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대학교 규모는 학생 수가 약 7천명이나 교수 수는 우리보다 1.5배 많았고, 학비는 과목마다 달라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었다. 또한 사회는 낙후하였어도 대학의 실용적, 자율적 커리큘럼의 운영으로 교육은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졌던 3박4일간의 블라디보스톡 일정에서 소련방 해체 후 이 나라와 각 주의 경제 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 있는지 등 무표정한 사람들을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읽어낼 수 있었으며, 또 현재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유 시장 경제의 자금자본 생산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일행은 다시 제주를 향하여 기선을 돌리면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다른 사회와 나라에 기여해야 할 만큼 경제 성장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귀환 피날레는 역시 울릉도를 막 지나서 작은 어선 트롤 저인망 고기잡이였다. 2~3시간 작업후 그물을 들어올렸더니 바다 밑 쓰레기와 더불어 여러 종류의 고기가 갑판 위로 쏟아져서 처음은 고기잡이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것은 여행지로 향하던 중 거문도 앞바다 고기잡이 계획이 파도가 세서 포기한 후 밤바다 오징어 낚시로 대체하여 느꼈던 기쁨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이번 여행은 바다와 더불어 넉넉한 마음으로 좋은 이웃들, 동료들과 함께 잠시 일상으로 부터 떠나 오랫동안 순수한 자연인의 삶을 만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김희철(독문학과 부교수)

제15회 백록학술상 현상공모

- 분 야
 - 주제논문(70매 내외)
 - 제주도의 사회변동 및 개발에 관한 내용
 - 일반논문(70매 내외)
 - 인문사회, 자연과학분야
- 시 상
 - 주제논문 당선작 1편-50만원
 - 일반논문 당선작 각 1편-50만원
- 응모 마감: 11월20일
- 제 출 처: 대학원동(구 학예회관)3층 본사편집국 (동기후원인 경우에는 '백록학술상응모작품'임을 명기할 것)
- 응모 자격: 우리대학교 재학생
- 당선발표: 추후 공고
- 기 타: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54-2278, 2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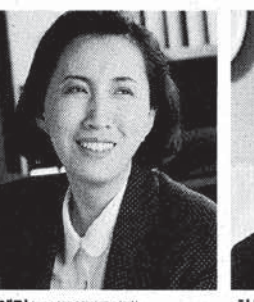
제대신문사



권성철 (중경전문기자)
울리노이대 경제학박사
前 버지니아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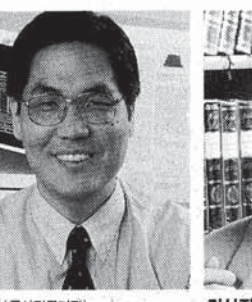
김정수 (경제전문기자)
존스홉킨스대 경제학박사
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혜경 (도시공학전문기자)
서울대 공학박사
前 인하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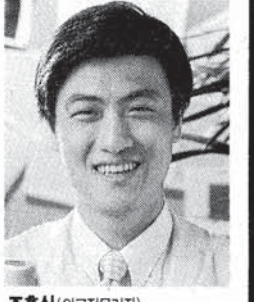
최성애 (러시아문학전문기자)
모스크바대 문학박사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고려대 경영학 박사과정
前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성진 (외교전문기자)
영리리 과학아카데미 정치학박사
前 고려대 아세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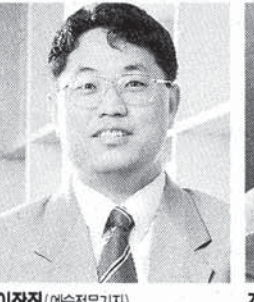


조흥식 (외교전문기자)
파리정치대 정치학박사
前 파리정치대(대학교) 조교, 한림대학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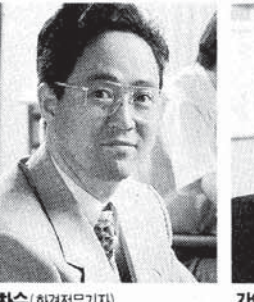
21세기 정보파트너
중앙일보 전문기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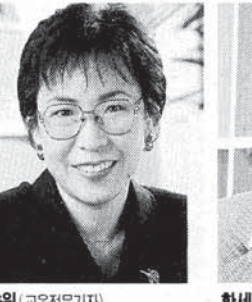
이민초 (뉴미디어전문기자)
KAIST 경영학박사
前 한국이동통신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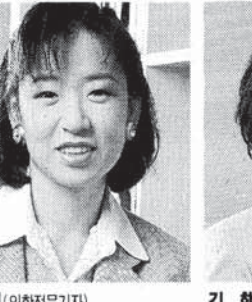
이장국 (예술전문기자)
서울대 작곡과 석사



김찬수 (환경전문기자)
서울대 이학박사
前 서울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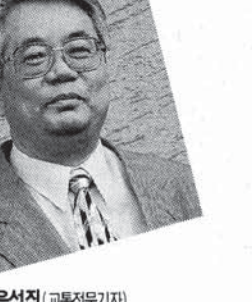
김양일 (교육전문기자)
서울대 철학박사
前 연세대 강사



황세호 (의학전문기자)
서울대 의학박사
前 서울대학교병원 전문의



김형 (조선전문기자)
연세대 사회학 석사
前 사회개발연구원 조서부장



윤성국 (교통전문기자)
노스웨스턴대 공학박사
前 국토·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섹션신문 중앙일보
전문기자가 만들어
정보의 깊이가 다릅니다.

21세기는 정보전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정보, 다양한 정보, 깊이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섹션신문 중앙일보는 교통, 증권, 경제, 도시공학, 러시아문학, 군사, 외교, 의학, 뉴미디어, 예술, 환경, 교육, 철학, 조사.....

각계 전문가를 전문기자로 선발하여 보다 분석적이고 깊이있는 정보를 드립니다.

이제, 21세기 정보파트너, 중앙일보 전문기자들 만나보십시오.

